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판](#)

○ 한국일보

[단독] 주말엔 서류 못 떼다니...한 명이 아쉬운 장기기증, 발급지연에 무산



박경담 기자

입력 2026.10.12. 오후 4:38 수정 2026.10.12. 오후 4:56 기사원문

3 2

결단 필요 장기 기증, 한 명도 귀한데
의무기록 사본 받는 사이 기증자 사망
번거로운 발급 절차에 망설이는 가족



지난해 11월 트럭 돌진 사고로 숨진 뒤 장기 기증으로 세 명을 살린 고 문영인씨의 어머니 최서영씨가 5월 4일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문씨와 함께 찍은 사진첩을 보고 있다. 박시몬 기자

지난해 9월 60대 여성 A씨는 뇌사 추정자인 70대 친오빠 B씨의 장기 기증에 어렵게 동의했다. 이 여성은 이혼 상태로 자녀도 없던 B씨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였다. 장기 기증 전제 조건인 뇌사 판정을 내릴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려면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했다. 기증 동의서를 작성한 때가 금요일 오후 5시라 사본은 월요일 오전에 댈 수 있었다. 하지만 주말 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B씨는 월요일 새벽 숨졌고 결국 장기를 기증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장기 기증에 동의한 후 서류 발급 지연으로 기증이 성사되지 못한 첫 사례다.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숭고한 결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증원)에서 받은 '장기 기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뇌사 추정자 3,015명 중 장기 기증자는 370명(12.3%)으로 집계됐다.

장기 기증은 의료기관에서 뇌사 추정자가 기증에 적합한지 판단한 후 기증원이 보호자를 접촉해 동의를 얻어야 진행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장기 기증을 요청한 대기자가 4만595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명의 장기 기증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다.** 장기 이식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로 약 6년을 기다려야 한다.

"가족 대신 기증원에 사본 발급"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그런데 가족이 힘들게 결정한 장기 기증을 번거로운 의무기록 발급 절차가 방해하고 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무기록 사본은 전국 110여 개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위원회를 열고 뇌사 추정자에 대해 뇌사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애초 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로 입원했다면 위원회 제출용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병원에 있는 뇌사 추정자는 뇌사판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앞서 사본을 먼저 내야 한다.

기증원 집계 결과 장기 기증에 동의한 뇌사 추정자 가족이 서류를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지난해 기준 35.8시간이었다. 병원 정규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 야간 시간대에는 서류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이 없어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이 보호자인 경우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 더 오래 걸렸다.

현장에선 서류 발급이 늦어져 장기 기증 동의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앞선 사례처럼 서류 발급 지연은 뇌사 추정자의 건강이 급변할 수 있는 가운데 기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키운다. **병원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뇌사 추정자의 의무기록 발급을 위해 주말, 야간 근무자를 따로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가족 대신 기증원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을 고치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주말, 야간 시간대에도 전산으로 사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증원 역시 관련법 개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장기 기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박경담 기자 한국일보

"215만원 마사지 해야 예약 가능"... 산모 울리는 산후조리원 '바가지'
한국판 위고비·마운자로 나온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식약처 허가

한국
일보

한국일보 구독하고
메인에서 바로 만나보세요!

언론사홈

한국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내란은 이재명, 재판받아라" 외친 신랑·신부... '윤 어게인 웨딩' 갑론을박
한 번 울고 축 늘어진 1.7kg 아기, 엄마는 보일러실에 숨겼다
태안서 산책 나간 30대 바다서 숨진 채 발견... 가족이 실종 신고
여직원이 담배 피우며 부장 '참교육'... 심수봉 '후배 저격' 역풍 맞은 이유
연봉 18억... 퇴직 후 더 잘나가는 국세청 간부들의 '비밀'



'암살자(들)' 학교 단체관람, 어떤가요?... "막기보
단 사실·허구 가르는 교육"



여수섬박람회에 100만명 몰렸다... '트럭 뱃놀이·
바가지' 논란 덮고 흥행 반전?

한국일보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이슈

이슈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우디·이란 외무, 후티 공격 이후 첫 통화... 이란...



이슈 **3대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
종호, 증거인멸교사 무...



이슈 **오락가락 코스피**

삼전닉스 전망 엇갈린 이
유... 마이크론 "2028년...

